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제2보)
- 소재, 소매와 장식유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ession Formation According to Design Elements of Wedding
Dresses and Perceivers Gender(Part II)
-Emphasis on Materials, Sleeves, and Trimmings of Wedding Dresses-**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이 미 연 · 이 명 희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Mi-Yeon Lee · Myoung-Hee Lee

(2002. 4. 29 접수)

Abstract

The objective in the part II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aterials, sleeves, trimming, and perceivers gender on impression formation. Stimuli consisted of 13 color photographs of a female model wearing a wedding dress which were manipulated according to clothing cues. A semantic differential scale of 4 dimensions was used. These were attractiveness, neatness, femininity, and prettiness. Samples were 312 males and females.

For the effect of sleeves, there were significant main effects in attractiveness, femininity, neatness, and prettiness. Three-quarters lace ruffled sleeves increased the perception of positive attractiveness, femininity, and prettiness. Flounced sleev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neatness. Long-tight sleeve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attractiveness, femininity, and prettiness. Sleeveless dresses increased the perception of negative neatness.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sleeves and the perceivers gender on neatness.

For the effect of material, there were significant main effects in neatness, femininity, and prettiness. Solid cloth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neatness and negatively on prettiness. The combination of lace and solid cloth increased the perception of positive femininity and prettiness. Lace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neatness. Satin increased the perception of negative femininity.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material and perceivers gender on prettiness.

The main effect of trimmings was its effect on prettiness. Ribbons increased the perception of positive prettiness. Not having any trimming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prettiness.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trimmings and the perceivers gender on neat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that image perception of wedding dresses becomes different according to the materials, details, and perceiver's gender.

Key words: wedding dress, material, sleeve, trimmings, impression formation;

웨딩드레스, 소재, 소매, 장식, 인상형성

I. 서론

사회생활에서 타인의 인상을 형성하게 될 때 특히 의복의 특징은 상대방의 인상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게 된다. 인상형성은 타인에 대한 정보들을 조직화시켜 전체적인 형태 안에 통합되며, 여러 정보들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주어지는 맥락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 지각대상자가 지닌 특성 중 인상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심 특질이 있고 이 중심 특질에 따라 주변 특질의 의미가 결정되어 전체적인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강혜원, 1995). 의복에 의해 형성되는 인상 지각은 의복의 각 디자인 요소에 대한 각각의 지각이 하나로 통합된 전체적인 영상으로 시지각에 의해 좌우되므로, 의복의 전체를 나타내는 실루엣과 의복의 부분을 나타내는 디테일 등의 상호관계에 의해 인상이 형성된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다른 어떤 디자인 요소보다 감정, 정서 등을 전달하여 심리적 효과를 좌우한다(Horn & Gurel, 1981).

의복의 디자인 요소가 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로 여성용 블라우스(Francis & Evans, 1987; 문영보, 1991; Johnson, Crutsinger, & Workman, 1994), 여성용 수트(고애란, 1990; 이주현, 1990; 이주현 · 조궁호, 1995), 한복(강혜원 · 고애란, 1991; 이현화 · 박찬부, 1997), 남성복(이은미, 1992; 남미우, 1992; 이지현, 1993, 이향미, 1995) 등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결혼식에서 신부들이 착용하는 웨딩드레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의류학 분야에서 웨딩드레스에 대한 연구는 복식사 측면에서의 고찰(한상숙, 1985; 김민숙, 1989; 문윤경, 1995)이나 디자인 개발(현선진, 1986), 또는 마케팅 측면(김영선, 1996)에서의 연구가 다소 있으며, 인상형성에 관련된 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요소들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와 지각자의 성별이 신부의 전체적인 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며, 웨딩드

레스 구입 시 여성들이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인상형성의 요인구조를 밝힌다.
2. 실루엣, 네크라인 및 지각자 성별에 따른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인상형성의 차이를 규명한다.
3. 소재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인상형성의 차이를 규명한다.
4. 소매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인상형성의 차이를 규명한다.
5. 장식유무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인상형성의 차이를 규명한다.

제 1보(한국의류학회지 24권 5호, 2000)에서는 연구목적 1과 연구목적 2를 규명하였다. 즉 웨딩드레스의 착용자가 주는 인상의 차원 구조를 분석하였고, 실루엣, 네크라인,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인상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이에 이어서 제 2보에서는 웨딩드레스의 소재, 소매, 장식 요소들이 착용자의 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인상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 요소를 조사하고자 한다.

제 2보는 제 1보와 함께 진행된 연구이므로 여기에서 제 1보와 중복되는 이론적 배경, 용어정의, 연구방법의 일부는 생략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의 디자인 요소

1) 소재

복식의 소재는 직물을 비롯하여 편물, 부직포, 피혁, 비닐 등 상당히 종류가 다양하다(이호정, 1997). 소재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그 소재가 지니고 있는 느낌, 즉 재질감이다. 재질감이란 텍스처어(texture)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섬유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또는 섬유가 실로 만들어질 때의 섬도(纖度)나 꼬임수, 조직이나 밀도의 구조적인 성질이 통합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복식의 재질감을 나타내는 요소는 시각

에 의한 것과 촉각에 의한 것이 있다. 시각에 의하여 얻어지는 재질감으로는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광택과 실의 굵기와 직물의 조직에 따라 결정되는 투시 정도가 있다. 촉각에 의하여 얻어지는 소재감에는 표면성질, 유연성, 두께 등이 있다. 특히 직물의 유연성과 두께는 의복이 만들어졌을 때의 삼차원적 표면 효과에 영향을 준다(김영자, 1998). 이와 같이 인간의 촉각, 시각 등에 의하여 생겨나는 재질감은 디자인의 감각적인 요소로 재질감에 따른 느낌과 효과에 의해서 심리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한다.(이호정, 1997).

이상과 같이 소재는 의복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하므로 선이나 형태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관찰자의 눈에 띄어 전체 인상을 좌우할 수 있다(Delong, 1987).

권은주(1989)는 질감의 지각과 이미지 전달기능에 관한 연구에서 질감은 감각 체험으로 형성된 추상적이며 정신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체계화나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나, 생명력 있는 표면성을 지녀 시각 표현을 위한 가능성을 부여하고 감각적 설득력을 가지므로써 이미지 전달에 추진력을 주는 에너지라 하였다. 김희정, 이경희(1993)의 연구에서 의복 자극물과 제시방법에 따른 시각적 평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그 결과, 레이스면으로 된 의복 자극물이 보다 특이하고 소재감이 있으며 비치는 현시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며 소재의 시각적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은 무지면은 용모 단정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이미정, 김준범, 이인자(1997)의 연구에서 칼라의 소재에 따른 얼굴 인상의 경연성을 실험한 결과 니트와 모피 소재인 칼라가 가죽과 벨벳 소재인 칼라보다 얼굴에 보다 부드러운 인상을 주었다.

2) 소매

소매는 의복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소매의 위치가 몸체의 상부 좌우에 있으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자유로운 동작에 의해서 마음의 의지를 쉽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매의 미적 표현은 형태면에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먼저 소매의 크기로 길이가 긴 것과 짧은 것, 폭이 넓은 것과 좁은 것이 있다. 다음은 소매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변화 시킨 것으로, 일부분만을 좁히거나 넓은 것 또는 일정한 부분을 길게 늘여지게 하는 것, 다른 디테일로 장식성을 첨가한 것 등이 있다. 또한 색을 달리하여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소매의 규모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인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소매가 의복 전체를 지배할 정도로 큰 것도 있다. 이와 같이 소매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데, 그 형태에 따라서 착용자를 부드럽게도 혹은 권위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으므로(김영자, 1998), 의복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모양이나 크기로 시각적인 조화를 비롯하여 상징적인 의미나 심리적인 자극을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의복에서 소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하겠다(이호정, 1997).

소매가 착용자의 인상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용휘(1997)는 소매확대 부위, 스커트폭, 스커트길이 변화가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결과, 기본 소매는 스커트 폭에 관계없이 멋있고, 촌스럽고, 주의집중성이 낮으며 딱딱하고 껌 끼는 인상을 주는 반면 상부 또는 전체 확대 소매는 세련되고 멋있는 이미지, 매력 있고, 유행에 앞서고 섹시하고 눈에 띄며, 부드럽고 풍성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1995)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의복의 칼라와 슬리브 조합에 의한 착시효과와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칼라와 슬리브 조합에 의한 의복이미지 차이는 특히 경연성 요인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는데, 플랫폼 칼라에 래글런 슬리브, 러플칼라에 래글런 슬리브, 보우칼라에 셸인 슬리브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나타냈다. 또한 테일러드 칼라에 셸인 슬리브, 스탠드 칼라에 셔츠 슬리브는 딱딱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남미우, 조정미(1997)는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자들의 수도복과 머리모양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특히 수녀복의 소매길이는 외모특성 요인에만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는데 긴소매의 착용자는 시대에 맞지 않고 보기 싫으며 투박한 인상을, 반소매 착용자는 시대에 맞고 보기 좋고 투박하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소매유형은 단독 변인으로나 다른 디자인 요소와의 조합에 의해서나 모두의

복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경연성 요인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장식

장식은 트리밍과 동의어(조규화편, 1995), 혹은 디테일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Jernigan & Easterling, 1990). 디테일이 봉제과정에서 제작되는 장식이라 하면, 트리밍은 옷을 장식할 목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거나 다른 재료로 만들어 표현되는 장식이라 할 수 있다(유송옥, 1983; 이정옥 외, 1995). 대체로 우리의 지각은 작은 것은 가볍고 큰 것은 무거우며, 작은 것이 귀여우면 큰 것은 믿음직스러운 대비적인 인상이 작용되는데 이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장식이 사용될 수 있다(김영자, 1998).

웨딩드레스에 사용되는 장식으로는 베일을 비롯하여 웨딩햇, 크라운, 꽃, 리본, 부케, 장갑, 구두 또는 액세서리 등이 있다. 웨딩드레스에 있어서 장식은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것으로서, 드레스 자체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 그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역할을 하며, 또한 단순한 형의 드레스에 장식을 적절하게 이용함으로써 화려함이나 귀여움 등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현선진, 1986).

강혜원, 고애란(1991)은 디자인의 전통성, 장식성, 한복 응용도와 배색에 따른 여자 한복의 인상형성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특히 디자인의 장식성은 전통 한복인 경우에만 현대성, 실용성 요인에 영향을 미쳐 장식적인 한복이 보다 현대적이고 비실용적으로 지각되었다. 이것은 근래의 전통 한복 착용의 증가와 더불어 장식적인 한복착용은 보다 의례적이고 특수한 행사에서 두드러짐으로써 비실용적인 인상을 준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경희(1994)는 의복형태와 디테일에 의한 표면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표면 이미지는 디테일의 방향보다는 의복형태와 디테일의 종류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어 A-line, X-line인 경우 프릴에 의한 표면 이미지는 의복의 귀여운 이미지가 부각되었고, V-line인 경우 프릴에 의한 표면 이미지는 의복의 현실적인 측면을, V-line에 테이프에 의한 표면 이미지는 의복의 현대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오선아(1995)는 의복범주, 장식의 음양수준, 장식 양(量)의 수준과 지각자 변인이 임신부의 인상과 직업적 합성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사선 줄무늬의 넥타이, 견장, 직선의 커피스소매와 셔츠 칼라 등의 남성적 이미지로 표현된 장식인 경우에는 진보적으로 지각되었고, 풀방울 무늬의 스퀘어, 프릴 소매와 둥근 칼라 등의 여성적 이미지로 표현된 장식인 경우에는 사교적으로 지각되었다. 한정숙, 류숙희(1997)의 연구에서는 단추 수의 변화에 따라 테일러드 재킷이 다른 이미지를 나타냈다. 즉 싱글 재킷과 더블 재킷 모두에서 단추의 수가 하나일 때, 우아한, 품위있는, 노숙한, 포멀한, 단정한, 깔끔한, 자연스러운, 시원한, 날씬해 보이는 등의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단추의 수가 증가될수록 단정하지 않은, 특이한, 뚱뚱해 보이는, 복잡한 등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다양한 장식 유형이 의복의 이미지나 인상형성과 관련되어 연구되었으며, 장식은 의복 디자인 요소 중 하나로써 의복 착용자의 인상 지각 차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1) 자극물

(1) 모델선정

자극물 속의 지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웨딩잡지에서 타원형의 표준 얼굴 유형에 해당되는 10명의 모델을 선정한 후, 판단집단 40명의 평가를 거쳐 1명의 모델을 선정하였다.

(2) 자극물의 디자인 요소 선정

본 연구의 실험에 사용될 웨딩드레스 디자인 요소(소매, 소재, 장식)의 결정은 1997년 1~12월호 웨딩잡지 '마이웨딩'과 'She's Bride'에 게재된 웨딩화보 455점의 디자인 요소 분석 결과(Lee & Lee, 1999)에 의해서였다.

즉 디자인 요소 분석 결과 각각의 디자인 요소 중 출현 빈도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였다. 그러므로 소매에

있어서는 슬리브리스, 프렌치, 쇼트, 7부-레이스 러플, 롱-타이트, 플라운스 슬리브가 선정되었다. 소재는 허리선을 기준으로 상하의에 있어서 주로 레이스와 공단, 무문직이 사용되었으므로 3가지 소재를 상하의에 조합하여 4가지 경우로 제작하였다. 즉 상하 모두 무문직인 경우, 상의는 레이스이고 하의는 무문직인 경우, 상하 모두 레이스인 경우, 상하 모두 공단인 경우이다. 장식 유무에 있어서는 먼저 장식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 소재로 꽃과 리본이 많이 사용되었으므로, 허리에 꽃 장식이 있는 경우와 허리에 리본 장식이 있는 경우가 선정되었고, 또한 장식이 없는 경우가 선정되었다.

(3) 자극물 제작방법

자극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정면 자세의 모델 모습과 선택된 의복 디자인 요소의 항목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시뮬레이션(simulation)에 의하여 합성 의복 자극물을 완성하였다. 자극물의 수는 4가지 소재, 6가지 소매, 3가지 장식으로 구성된 13가지이며, 이와 같은 자극물을 20×27cm의 전신 사진으로 칼라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완성된 자극물은 소매, 소재, 장식 유형에 따라 W19에서 W31까지의 기호를 붙였다. W19~W24는 소매유형이었다. W19는 슬리브리스, W20은 프렌치 슬리브, W21은 쇼트 슬리브, W22는 7부-레이스 러플 슬리브, W23은 롱-타이트 슬리브, W24는 플라운스 슬리브이다. 이때 W19~W24의 통제변인으로는 스커트 실루엣은 둥형, 네크라인은 라운드 네크라인, 소재는 상하의 모두 무문직이며, 장식은 없는 것이었다. W25에서 W28은 소재유형이었다. 즉, W25는 상하의 모두 무문직인 경우, W26은 상의는 레이스이고 하의는 무문직인 경우, W27은 상하의 모두 레이스인 경우, W28은 상하의 모두 공단인 경우이다. W25~W28의 통제변인으로는 실루엣은 둥형, 네크라인은 하이 네크라인 소매는 쇼트 슬리브이고 장식은 없는 것이었다. 여기서 네크라인을 기본 네크라인인 라운드로 사용하지 않고 하이 네크라인으로 선택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상의 전체가 레이스 소재로 만들어지는 경우 목부분은 하이 네크라인으로 디자인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W29에서 W31은 장식유형이었다. 즉, W29는 장식이 없는 경우, W30은 허리에 꽃 장식이 있는 경우, W31

은 허리에 리본 장식이 있는 경우이다. W29~W31의 통제변인으로는 실루엣은 둥형, 네크라인은 라운드 네크라인, 소매는 쇼트 슬리브, 소재는 상하의 모두 무문직으로 통제되었다.

2) 의미미분척도의 형용사쌍 선정

제 1보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미미분척도는 7점 양극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었으며, 39개의 형용사쌍이 선정되었다.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요인분석과 Cronbach's alpha 신뢰도 검증에 의하여 검토되었으며, 선택된 문항은 제 1보에서 매력성, 단정성, 여성적, 귀여움성의 4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매력성에는 매력적인-매력적이지 못한, 세련된-촌스러운, 산뜻한-우중충한, 아름다운-아름답지 않은, 보기 좋은-보기 싫은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고, 단정성에는 단정한-단정하지 못한, 얌전한-얌전하지 못한, 순수한-순수하지 않은, 깔끔한-깔끔하지 못한, 청순한-요염한 등이 포함되었다. 여성성에는 따뜻한-차가운, 여성적인-남성적인, 부드러운-딱딱한, 섬세한-대담한 등이 포함되었고, 귀여움성에는 귀여운-성숙한, 발랄한-점잖은, 상냥한-무뚝뚝한, 어려보이는-나이들어보이는 등이 포함되었다.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피험자는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20, 30대의 남녀 각각 156명씩 총 3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자극물에 남녀 각각 12명씩 반응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통계분석방법은 소매, 소매, 장식유무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인상형성의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의 속성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하여 보조적 분석으로서 MCA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소재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인상형성의 차이

소재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인상형성의 상호작용효

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과 MCA를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주효과를 보면, 소재는 단정성, 여성적, 귀여움성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매력성 요인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MCA에서 나타난 소재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보면 상의와 하의가 무문직인 경우가 가장 단정하나 가장 귀엽지 않게 지각되었으며 상의는 레이스이고 하의가 무문직인 경우는 가장 여성적이며 귀엽게 지각되었다. 또한 상의와 하의가 모두 레이스인 경우는 가장 단정하지 않게 지각되었으며, 상의와 하의가 모두 공단인 경우는 가장 여성스럽지 않게 지각되었다. 이와 같이 소재 종류에 따라 지각대상자의 인상이 다르게 지각될 수 있는데 상의와 하의가 모두 무문직인 경우, 즉 광택이 없으면서 무늬가 없는 흰색 옷감으로 만들어진 웨딩드레스인 경우는 옷감 자체에 어떠한 특징이 없기 때문에 단정하고 수수하게 지각되며 귀여움보다는 성숙하고 점잖게 지각된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 상의나 하의가 모두 레이스로 만들어진 웨딩드레스 착용자인 경우, 레이스 자체가 편성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져 얇고 구멍이 뚫린 형태이며 장식성이 강한 옷감이므로 가장 단정하지 않은 이미지로 지각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결과는 레이스면이 현시성이 높은 이미지를 나타냈고 무지면은 단정하고

조밀한 이미지를 나타냈다는 김희정, 이경희(1993)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내용이다. 한편 상의는 레이스이고 하의는 무문직으로 만들어진 웨딩드레스인 경우는 가장 여성적이면서도 가장 귀엽게 지각되었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화려하고 장식성이 강한 레이스를 상의에 표현하고 하의는 단정하면서도 깔끔한 무문직의 옷감으로 받쳐주므로써 전체적으로는 너무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단순하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으므로 가장 여성적이고 부드럽게 지각되었으며 상의는 레이스로 처리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성숙하고 점잖은 이미지보다는 귀엽고 발랄하게 지각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상의와 하의가 모두 공단으로 만들어진 경우는 가장 여성스럽지 않게 지각되었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공단 자체에서 나오는 광택의 이미지가 부드럽지 않은 딱딱한 이미지로 지각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각자 성별은 매력성, 여성적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단정성, 귀여움성 요인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남자는 여자보다 동일한 소재의 지각 대상자를 더욱 매력적이고 여성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소재와 지각자 성별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는 귀여움성 요인에서 나타났다. 귀여움성 요인에 대한 소재와 성별에 의한 상호작용형태와 각 집단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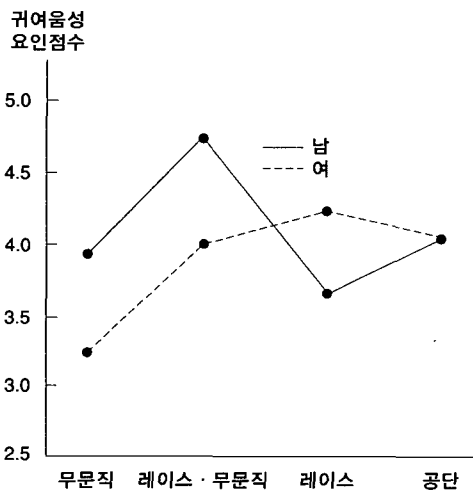
<표 1> 소재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인상형성의 차이

분석방법	변량원		df	매력성 F		단정성 F		여성적 F		귀여움성 F	
2원 변량분석	주효과	소재(A)	3	0.59		9.71***		4.67**		3.90*	
		성별(B)	1	13.47***		2.84		4.42*		1.41	
	2원 상호작용효과	A×B	3	2.47		1.35		0.65		3.81*	
	집단내 오차			88							
MCA	변인	속성	N	평균의차 eta		평균의차 eta		평균의차 eta		평균의차 eta	
	소재	무문직	24	.09		.44		.06		-.39	
		레이스·무문직	24	-.10		.41		.41		.39	
		레이스	24	.08		-.56		-.06		-.06	
		공단	24	-.08 .13		-.29 .48		-.40 .36		.0 .32	
	성별	남	48	.24		.14		-.16		.10	
여		48	-.24 .35		-.14 .15		-.16 .20		-.10 .11		

*p<.05, **p<.01, ***p<.001

〈표 2〉 귀여움성 요인에 대한 지각자 성별과 소재에 따른 평균치

성별 \ 소재	무문직	레이스·무문직	레이스	공단
남	3.93	4.73	3.61	4.04
여	3.25	4.01	4.23	4.04



〔그림 1〕 귀여움성 요인에 대한 지각자 성별과 소재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치는〈표 2〉,〔그림 1〕과 같다.

즉 남자는 상의와 하의가 모두 무문직인 경우와 상의는 레이스이고 하의는 무문직인 경우를 여자보다 더 귀엽다고 지각하였고 상의와 하의가 모두 레이스인 경우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귀엽다고 지각하였다. 이와 같이 여자들에게는 웨딩드레스 상하의 전체에 사용된 레이스의 독특한 소재감이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로 지각되었으나 남자들에게는 상의는 레이스로 표현되고 하의는 단정한 이미지의 무문직으로 표현된 웨딩드레스가 더 귀엽게 지각된 것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전체적으로 화려한 옷감에 대해 더 호감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즉 소재에 따른 인상 지각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소재는 단정성, 여성적, 귀여움성 요인에 영향을 주는 의복 단서였으며, 소재 중에서도 상의는 레이스이고 하의는 무문직인 경우가 특히 여성적이고 귀엽게 지각되었다.

2. 소매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인상형성의 차이

소매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인상형성의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과 MCA를 실시

〈표 3〉 소매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인상형성의 차이

분석방법	변량원		df	매력성 F		단정성 F		여성적 F		귀여움성 F	
	주효과	소재(A) 성별(B)									
2원 변량분석			5	2.96*	4.00**	2.51*	6.86**				
	2원 상호작용효과	A×B	1	5.88***	2.93	5.42*	1.37				
			5	0.48	3.66*	1.27	2.11				
집단내 오차			132								
MCA	변인	속성	N	평균의차	eta	평균의차	eta	평균의차	eta	평균의차	eta
	소재	슬리브리스	24	.20		-.37		-.20		.22	
		프렌치	24	.21		-.29		.01		.15	
		쇼트	24	-.06		.23		-.00		-.11	
		7부-레이스 러플	24	.35		-.22		.40		.59	
		롱-타이트	24	-.42		.18		-.28		-.54	
		플라운스	24	-.28	.31	.47	.34	.07	.28	-.31	.44
	성별	남	72	.18		.12		.14		.07	
여		72	-.18	.19	-.12	.13	-.14	.19	-.07	.09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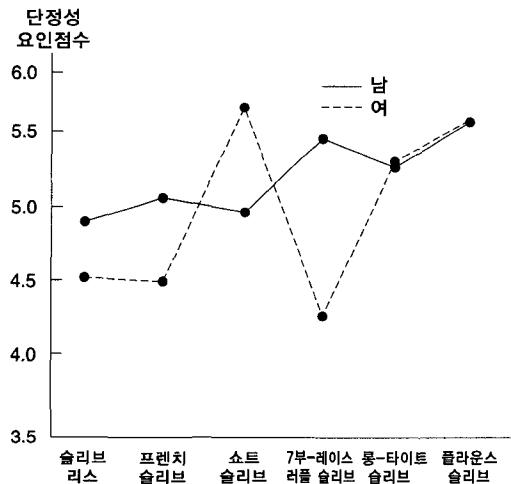
〈표 4〉 단정성 요인에 대한 지각자 성별과 소매에 따른 평균치

성별 \ 소매	슬리브리스	프렌치	쇼트	7부-레이스 러플	롱-타이트	플라운스
남	4.90	5.08	4.95	5.46	5.25	5.55
여	4.51	4.50	5.67	4.25	5.26	5.55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주효과를 보면, 소매는 매력성, 단정성, 여성적, 귀여움성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MCA에서 나타난 소매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보면, 7부-레이스 러플 슬리브가 가장 매력적이며 여성적이고 귀엽게 지각되었으며, 플라운스 슬리브가 가장 단정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한편 롱 타이트 슬리브는 가장 매력적이지 않으며 여성적이지 않으며 귀엽지 않은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슬리브리스가 가장 단정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와 같이 소매 유형에 따라서 지각대상자의 인상이 다르게 지각되었는데, 7부-레이스 러플 슬리브는 팔꿈치 정도 길이의 소매 끝에 처리된 레이스 소재의 리드미컬한 러플이 지각자로 하여금 매력적이고 여성적이며 부드럽고 귀여우면서도 발랄한 이미지를 느끼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롱-타이트 슬리브가 매력적이지 못하고 답답하며 세련되지 않고 보기 좋지 않게 지각된 것은 롱-타이트 슬리브 자체가 팔을 전혀 노출시키지 않으며 팔에 꼭 맞는 형태인데다가 자극물의 조사시기가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남미우, 조정미(1997)의 연구에서 긴소매의 수녀복이 보기 싫으며 투박한 인상을 준다는 결과와 이웅휘(1997)의 연구에서 스커트 폭에 관계없이 기본소매가 멋없고 촌스러운 것으로 지각되었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롱-타이트 슬리브가 가장 여성스럽지 않고 귀엽지 않다고 지각된 것은 롱-타이트 슬리브가 장식적이지 않은 정장용 재킷 소매를 연상시키므로 성숙하면서도 점잖은 이미지로 지각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슬리브리스가 가장 단정하지 않게 지각된 것은 웨딩드레스에 있어서도 노출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으나 소매가 전혀 달리지 않은 슬리브리스인 경우는 팔을 전부 노출시키므로 단정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



〈그림 2〉 단정성 요인에 대한 지각자 성별과 소매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었다고 볼 수 있다.

지각자의 성별은 매력성, 여성적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남자는 여자보다 소매변화에 있어서 동일한 지각대상자를 더욱 매력적이고 여성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2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는 단정성 요인에서 나타났다. 단정성 요인에 대한 소매와 성별에 의한 상호작용형태와 각 집단의 평균치는 〈표 4〉, 〈그림 2〉와 같다.

즉 남자는 여자보다 슬리브리스, 프렌치 슬리브와 7부 레이스 러플 슬리브를 단정하다고 보았고, 쇼트 슬리브 착용자에 대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욱 단정하다고 지각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자의 경우는 남자보다 노출이나 장식적인 면에 민감하게 지각하므로 소매가 달리지 않은 슬리브리스나 프렌치 슬리브, 또한 7부 길이에 레이스로 된 러플이 붙은 장식성이 강한 슬리브보다는 셀인 슬리브에 아무런 장식적 요

〈표 5〉 장식유무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인상형성의 차이

분석방법	변량원		df	매력성 F		단정성 F		여성적 F		귀여움성 F	
2원 변량분석	주효과	장식유무(A)	2	2.01		1.72		1.07		6.09*	
		성별(B)	1	0.17		0.76		0.03		1.01	
	2원 상호작용효과	A×B	2	0.40		6.23**		0.60		0.57	
	집단내 오차			66							
MCA	변인	속성	N	평균의차	eta	평균의차	eta	평균의차	eta	평균의차	eta
	소매	장식 없음	24	-.12		-.15		-.15		-.45	
		꽃장식	24	-.16		-.08		-.05		.13	
		리본장식	24	.28	.24	.23	.20	.19	.18	.33	.39
	성별	남	36	.04		.08		-.02		-.09	
		여	36	-.04	.05	-.08	.10	.02	.02	.09	.11

**p<.01

〈표 6〉 단정성 요인에 대한 지각자 성별과 장식유무에 따른 평균치

장식유무 성별	장식 없음	꽃 장식	리본 장식
남	4.95	5.63	6.03
여	5.67	5.13	5.35

소가 없으면서 팔의 윗부분을 어느 정도 가리는 짧은 길이의 쇼트 슬리브를 가장 단정하게 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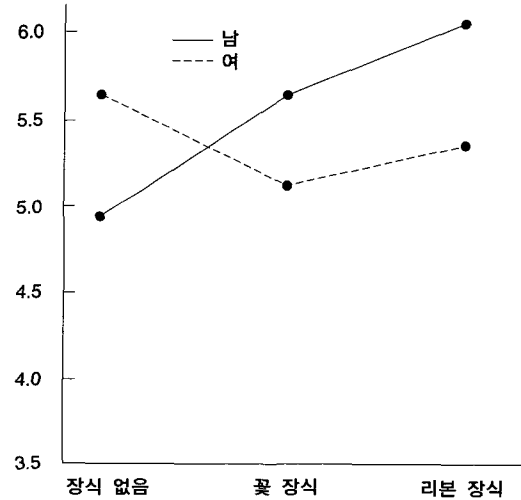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소매는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인상차원 4개 요인에 모두 영향을 주어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인상지각에서 중심 특질(central trait)이 되는 단서로 나타났다. 또한 소매 중에서도 7부-레이스 리플 슬리브가 특히 매력적이고 귀엽게 지각되었다.

3. 장식유무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인상형성의 차이

장식유무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인상형성의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과 MCA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주효과를 보면, 지각자 성별은 모든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고 장식유무는 귀여움성 요인에만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평균을 보면 허리에 리본 장식이 있는 경우를 가장 귀엽게 지각하였으며 허리에 장식이 없는 경우를 가장 귀엽지 않게 지

단정성
요인점수



〔그림 3〕 단정성 요인에 대한 지각자 성별과 장식유무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각하였다. 이와 같이 허리에 리본 장식이 있는 웨딩드레스 착용자가 가장 귀엽게 지각된 이유는 리본의 형태가 상징하는 발랄함이나 밝고 어려 보이는 이미지가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전체 인상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中野慎子 등(1986)의 연구에서 리본이 귀여움의 이미지를 높인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2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는 단정성 요인에서 나타났다. 단정성 요인에 대한 장식유무와 성별에 의한 상호작용형태와 각 집단의 평균치는 <표 6>, [그림 3]과 같다. 허리에 꽃 장식이나 리본 장식이 있는 웨딩드레스 착용자에 대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단정하다고 지각하였으나 허리에 장식이 없는 웨딩드레스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단정하다고 지각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볼 때 남자는 웨딩드레스의 허리부분에 꽃이나 리본 장식이 있는 경우, 특히 단아하게 묶인 리본으로 장식된 웨딩드레스 착용자를 가장 단정하고 얌전한 인상으로 지각하였으며, 여자는 허리에 아무런 장식이 없는 웨딩드레스 착용자를 가장 단정하게 평가하여 같은 장식이라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지각됨을 알 수 있다.

V. 결 론

제 1보와 2보에서 얻은 연구 내용을 통합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웨딩드레스를 구성하고 있는 디자인 요소인 실루엣, 네크라인, 소매, 소재, 장식은 각각 실제적으로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의복 단서로 나타났다. 둠형 실루엣과 벨형 실루엣, 스윗-하트 네크라인, 7부-레이스 러플 슬리브는 각각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매력성 이미지에 영향력이 컸으며, 플라운스 슬리브와 상하의가 모두 무문직으로 된 소재는 각각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단정성 인상 차원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벨형 실루엣과 둠형 실루엣, 7부-레이스 러플 슬리브가 여성적인 인상을 크게 나타냈고, 소매면에서 상의는 레이스이고 하의는 무문직으로 구성된 경우는 여성적인 이미지에 크게 기여하였다.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귀여움성 차원에는 벨형 실루엣과 둠형 실루엣, 오프-숄더 네크라인, 7부-레이스 러플 슬리브, 상의는 레이스이고 하의는 무문직인 소재, 허리에 리본 장식이 있는 경우가 각각 영향력이 큰 의복 단서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귀여움성 인상 지각에 있어서는 실루엣과 네크라인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즉 둠형 실루엣에 있어서는

하트-세이프 네크라인이 조합되었을 때 가장 귀엽게 지각되었으며, 벨형 실루엣에서는 오프-숄더 네크라인이 조합된 웨딩드레스가 가장 귀엽게, 스윗-하트 네크라인이 조합되었을 때는 가장 성숙하게 지각되었다.

둘째, 지각자 성별에 따른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인상형성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네크라인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하이 네크라인으로 만들어진 웨딩드레스 착용자를 더욱 여성스럽게 지각하였다. 또한 소매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슬리브리스, 프렌치 슬리브, 7부-레이스 러플 슬리브를, 장식의 경우는 허리에 꽃 장식, 리본 장식이 있는 웨딩드레스 착용자를 각각 더 단정하다고 지각하였다. 그러나 쇼트 슬리브와 허리에 장식이 없는 웨딩드레스 착용자에 대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단정하다고 지각하였다. 소매에 있어서는 상의와 하의가 모두 무문직으로 만들어진 웨딩드레스와 상의는 레이스이면서 하의가 무문직으로 만들어진 웨딩드레스 착용자를 남자가 여자보다 더욱 귀엽다고 지각했으나 상의와 하의가 모두 레이스로 만들어진 웨딩드레스 착용자에 대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귀엽게 지각하는 편이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실루엣, 네크라인, 소매, 소재, 장식은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전체 인상에 영향을 주는 의복 단서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의복 단서 중에서도 소매가 중심특질(central trait)이 되어 다른 특질인 실루엣, 네크라인, 소재, 장식보다 더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웨딩드레스에 있어서 소매의 변화로 인하여 인상을 더욱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의복 단서들은 지각자의 성별과 상호관련되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성별이 대인지각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에 따른 착용자의 인상 지각 측정을 위해서 실제로 착용되고 있는 디자인 요소를 선정하여 자극물을 구성하였으나 지각자에게는 사진으로 제시되어 평가되었기 때문에 실물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특히 소재에 있어서는 실물제시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소재에 따른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인상 지각 결과를 일

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웨딩드레스를 착용하고 있는 신부 곁에 있는 신랑의 예복 이미지를 함께 연구하여 신랑의 예복 디자인과 함께 신부의 웨딩드레스가 어떻게 지각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다면 결혼식 당일 커플의 이미지 연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혜원(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pp. 43-52.
- 강혜원 · 고애란(1991). 여자한복의 인상형성 연구: 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2), 211-227.
- 고애란(1990). Suit의 색과 신체노출이 정숙성 인상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권은주(1989). 이미지 전달요소로서 Texture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민숙(1989). 웨딩드레스(Wedding Dress)에 관한 연구: 웨딩드레스의 변천과정과 업계현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영선(1996). 예식문화변화에 따른 웨딩드레스 마케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 김영자(1998). 복식미학의 이해. 서울: 경춘사, pp. 91-153.
- 김희정 · 이경희(1993). 의복자극물과 제시방법에 따른 시각적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17(3), 428-435.
- 남미우(1992).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 변인이 남자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남미우 · 조정미(1997).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자들의 수도복과 머리모양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1(4), 757-768.
- 문영보(1991). 의복 및 얼굴변인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문윤경(1995). 우리나라 웨딩드레스의 근대사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오선아(1995). 임부복의 의복범주 및 장식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 대전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유송옥(1983). 복식의장학. 서울: 수학사, pp. 56-66, 81.
- 이경희(1994). 의복형태와 디테일에 의한 표면이미지의 시각적 평가.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이미연, 이명희(2000).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제1보): 실루엣과 네크라인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5), 724-735.
- 이미정 · 김준범 · 이인자(1997). 의복디자인 요소 변화에 의한 착시현상이 얼굴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1287-1296.
- 이우휘(1997). 스커트 폭, 길이 및 소매변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이은미(1992). 남성 정장착용자의 연령 및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정옥 · 조 차 · 이연순 · 권미정(1995). 패션과 의생활. 서울: 형설출판사, p. 129, 138.
- 이주현(1990).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주현, 조근호(1995). 의상디자인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1보): 의복 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5), 747-764.
- 이지현(1993). 남성 캐주얼웨어의 칼라형태와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 이향미(1995). 남자교사 의복의 격식차림, 색 및 맥락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전지역 남 · 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이현화 · 박찬부(1997). 의복단서, 지각자 변인이 여자한복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I): 의복단서를 중심으로. 복식, 32, 313-336.
- 이호정(1997). 복식디자인: 기성복 디자인에의 어프로치. 서울: 교학연구사, pp. 15-50, 105, 122.
- 조규화 편(1995). 복식사전. 서울: 경춘사. pp. 150-153.
- 최 정(1995). Computer Simulation을 이용한 의복의 착시효과와 이미지 연구: Collar와 Sleeve의 조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한상숙(1985). 근대 이후 한국의 혼례복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한정숙 · 류숙희(1997). 테일러드 재킷 디자인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 칼라 길이, 단추 수, Single/Double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1(8), 1376-1386.

- 현선진(1986). Wedding Dress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 中野慎子, 錢谷八榮子, 岡部和代, 山名信子(1986). 寫眞とデザイン畫によるイメージの相違. 日本衣類學會誌, 30(1), 6-12.
- Delong, M. R.(1987), 금기숙 역(1997). 복식조형을 보는 시각. 서울: 이룸, pp.89, 157.
- Francis, S, K., & Evans, P. K.(1987). Effects of hue, value, and style of garment and personal coloring of model on person perception.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4, 1987, 383-390.
- Horn, M. R., and Gurel, L. M.(1981). *The second skin*, Houghton Mifflin Company, pp. 75, 295-296.
- Jernigan, M. H., & Easterling, C. R.(1990). 임숙자 · 류은정 · 이승희 · 이주은 · 최성주 역(1997). 패션머천다이징 & 마케팅. 서울: 교문사, pp. 23-24.
- Johnson, K. K., Crutsinger, C., & Workman, J. E.(1994) Can professional women appear too masculine? The case of the neckti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2(2), 1994, 27-31.
- Lee, M. Y. & Lee, M. H.(1999). A content analysis of fashion trends in wedding dresses: Using wedding dress magazine, My Wedding and She's Bride issued in 1997.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Culture*, 2(2), 45-59.